

가톨릭대 2018학년도 인문 2번

✎ (가)의 '㉠사건'에 대해 (나)를 근거로 논술하시오. (500~600자 / 40점)

(가)

로자 파크스(Rosa Parks, 1913~2005)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 앨라배마 주(州)는 다른 곳에 비해 흑백 인종 차별이 여전히 심했다. 1955년 어느 날, 로자 파크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세 정류장 뒤에 탑승한 백인 남성이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앨라배마 주의 '인종 분리법'에 따르면 흑인은 버스 요금을 지불한 후 버스 뒤쪽에 앉거나, 버스 안에 백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좌석 한 줄을 전부 비워두어야 했다. 그러나 버스 앞자리에 앉아 있던 그녀는 백인 남성에게 자리 양보를 거부했고, 이를 이유로 체포되어 법원에서 14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1929~1968) 목사가 주도하는 비폭력적인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고,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1년여 동안 계속된 승차 거부 운동과 인종 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결국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공공 운송 수단에서의 인종 분리 및 차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후 1964년에는 미국에서 인종 차별 금지를 규정한 '시민권법'이 제정되었다.

(나)

근대 민주 정치는 신의 뜻이나 군주의 뜻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를 근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과 같은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법에 따라 국가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법에 구속함으로써 자의적인 국가권력의 남용을 제한한다.

초기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인 합법성이 크게 강조되어, 행정과 재판이 법에 근거하면 충분하고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때의 법치주의는 법률을 도구로만 이용한 합법적 지배, 즉 법률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법치주의는 독일 나치(Nazi)의 통치와 같은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사용되면서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에 통치의 합법성을 제공하지만, 그 자체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적 정당성도 중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두되었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정의의 실현 등과 부합해야 정당하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의 '㉠사건'에 대해 (나)를 근거로 논술하시오. (500~600자 / 40점)

[논제분석]

☞ A에 대해 B를 근거로 “논술하시오”

다짜고짜 논술하라고 시키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지 학생이 직접 생각해 보라는 요구 사항이다. A와 B가 사례와 이론의 관계라면 이론으로 사례를 설명하는 사실추론으로 풀면 될 것이고, B를 기준으로 A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면 비판을 해주면 된다. 두 제시문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적합한 논증을 구상해서 전개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논술하라’는 식으로 요구사항을 ‘넓게’ 제시했으므로 설명이면 설명, 비판이면 비판, 딱 한 가지만 할 필요는 없다. 특히나 비판을 했다면 이와 관련한 시사점이나 대안 등으로 첨언할 수 있다. 하지만 첨언은 첨언일 뿐, 보조적인 수준에서 분량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독해]

(가)의 '㉠사건':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나)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형식적 합법성은 물론, 내용적 정당성까지 갖춘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한다.

[논리평면] 사실추론

원인	전제	결론
(나)	형식적 합법성 + 내용적 정당성	실질적 법치주의
(가)	백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	Not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예시답안] 593자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정당성까지 갖춰야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표방한다. 제시문 (나)에서 주장하듯, 역사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충족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서 법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자유 등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가)의 '㉠사건'은 현대적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못한 구시대적 폐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은 '인종 분리법'에 따라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흑인 여성의 이야기이다. 이는 당시의 현행법으로 볼 때는 합법적인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준으로 볼 때 '인종 분리법'은 인간 보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에 나타나듯 흑인들을 중심으로 버스 승차를 거부하는 인권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인종 차별 금지를 규정한 '시민권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법의 합법성을 넘어 내용의 정당성까지 확보된 것으로서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문항해설]

- 본 문항은 미국에서 이미 흑인 노예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여전히 차별받는 현실을 제시한다.
- (가)에 나타난 사건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사건이 인종 차별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한다.
- (가)의 사건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실질적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그 시사점이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대학 채점기준]

- (1) 제시문 (가)에서 인종 분리법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행사로 로자 파크스가 처벌 받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 (2) 제시문 (가)의 ‘사건’ 이후 법치주의 발전사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 (3) 제시문 (나)에서 법치주의는 국가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4) 제시문 (가), (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와 법의 내용적 정당성이 중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 (5) 제시문 (나)에서 법은 그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부합해야 정당하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 (6) 위 (1)~(5)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의 사건과 (나)의 설명을 잘 연결했다면 내용점수 A 등급 부여.
- (7) 위 (1)~(5)의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각 1~2등급 감점.
- (8) 형식적 법치주의는 불필요하다거나, 실질적 법치주의만이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1~2등급 감점.

[대학 예시답안] 597자

제시문 (가)에서 로자 파크스는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인종 분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입각한 법이다. 인종 분리법은 흑인 차별을 규정했는데도 국가권력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두 번째는 인종 분리법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행사이다. 경찰의 체포와 법원의 벌금형 선고는 그녀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내용상으로도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제시문 (가)의 사건은 법에 근거한 행정과 사법이므로 법치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법치주의를 단지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해한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듯이, 국가권력이 법에 근거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형식적 합법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법은 그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실질적으로 부합해야 정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문제점은 모두 실질적 법치주의 이념에 위배되어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과 시민권법의 제정은 실질적 법치주의 이념의 실현을 통한 법치주의의 발전을 보여준다.

[에필로그]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내용성 정당성이 부족한 법은 악법이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제의 문제였어. 참 멋진 주제인 것 같아. 현행법을 구축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올바르고, 정상적인’ 것들도 국민의 상식으로는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을 거야. 이를 우리는 ‘악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에게 불리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진정한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정신일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갈 세상에도 이런 식의 악법은 얼마든지 존재할 거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학창 시절 속에서도 이런 걸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쌤은 고등학생 때 두발자유가 없었거든. 무조건 머리를 잘라야 했어. 남자들은 흔히 말하는 ‘스포츠형’으로 짧게 잘라야 했지. 그게 규정이었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벌점을 먹었고, 체벌을 당하기도 했어.

그때도 참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당하다고 맞서지는 못했던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 까봐. 대학 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될까봐. 그런 게 무서워서 그냥 꼭 참고, 일단 대학에 들어가자. 대학에 들어가서 정의든 뭐든 추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꼭 그랬을까. 제시문에서 봤던 흑인 운동가들처럼 어떤 결의를 보여줄 수 있진 않았을까?

대학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글썄, 많이 바뀌지는 못했던 것 같아. 대학생 때도 또 대학생의 ‘눈 앞의 불똥’이란 게 있었고, 나는 또 거기에 급급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 언젠가는 나도 정의감에 불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말이야.

너는 어떠니? 네가 지금 느끼는 부당한 법치주의는 무엇일까.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혹은 부모님이 강제하시는 어떤 규칙 중에도 하나 있지는 않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